

미국과 한국을 위한 특별기도 31 (01/12/2025)

작성자: Dr. 김정한선교사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움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 요나 3:5-6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선교역사에 해방이후 첫 선교사로 55년도에 최찬영선교사님을 태국에 파송하신지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70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심판과 구원의 주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한국선교는 이제 70년 회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3세의 후배들이 최찬영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세계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계속 사용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하여 한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선교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실줄 믿습니다. 선교적 회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들이 이제는 양적성장엔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한국교회안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고 다시 축복을 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이 한국교회 선교회년의 시기에 맞물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6.25동란이후에 번영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정치불안 가운데 있는데 좌파들의 공격으로 교회들을 허물려는 보이지 않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등 반성경적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라의 정치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문제는 영적으로 볼때 한국 근대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교회안에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어느새 영적인 힘(Spiritual Power)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더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에 보내지 못하고 있었고 선지동산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줄어들었고 교회들의 주일학교들은 많은 수가 없어졌습니다. 차세대 신앙계승에 문제가 있게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들은 안전지대(comfort zone)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안전지대, 선교의 도전이 없는 안전지대(Missionless Churches), 부흥과 성장이 없는 안전지대(Non-Revival comfort zone)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중에 말씀해주신것으로 지금 이 시기의 문제는 좌파, 우파의 정치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들을 죽이려는 마귀의 작난임을 보게하셨습니다. 다시 교회들이 선교회년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고 기도부흥, 전도부흥, 예배부흥, 선교부흥이 있어야 하고 영적회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원하시는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화려한 명품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과 집안에 먹을 양식이 넉넉함과 은행통장에 돈이 있음으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자랑했던것을 회개하고 저희가 배움을 입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아버지께 겸손히 공회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압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영적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최찬영선교사님이 55년도에 태국으로 나가신 선교의 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들, 영적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선교의 회년을 맞이하여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일은 아버지께서 한국 교회들을 깨우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교회와 기독교신앙을 가장 적대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임을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면 이 난국이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실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지금 산불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복음이 미국안에 편만히 퍼지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그에게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선교회년을 맞이하여 배움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